



2006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 정부 공인의 우수기능인 선발무대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열렸다. 우수기능인 발굴의 장으로 발돋움한 기능경기대회에 지난해에 이어 시범직종으로 참가한 제과제빵 직종의 대회 현장을 취재했다. 글_박소희 기자·사진_이성우, 전문식, 주현진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 동안 개최됐다. 48직종에서 총 759명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는 4월 12일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4곳의 시험장에서 직종별로 치러졌다.

시범직종으로 참가한 제과제빵 직종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에 걸쳐 한국제과학교에서 13명의 신청자 가운데 모두 1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임현양 심사장과 안종섭, 임영래 심사위원의 감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실현하는 실기경연 형태로 진행됐다.

첫째 날에는 데니스 페이스트리 반죽을 이용해 초승달, 달팽이, 바람개비, 주머니 모양의 빵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고 둘째 날에는 버터크림과 가나슈를 이용한 데코레이션 케이크 만들기, 마지팬으로 과일 만들기가 과제로 주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선수들이 만든 작품의 작업 상태, 전체적인 구성의 조화, 정교한 표현력 등을 꼼꼼하게 점수매겼다.

임현양 심사장은 "정실하게 과제를 만드는 선수들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는 좀 더 폭넓은 연령대의 기술인들이 참가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4월 18일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대한제과직업전문학교 소속 변중범 선수가 금상의 영예를 안았고, 은상은 씨에프랑스 정일균, 동상은 정확천, 장려상은 김영세 선수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제과인은 오는 9월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



1 둘째 날 경기에는 버터크림과 가나슈를 이용한 데코레이션 케이크 만들기, 마지팬으로 과일 만들기 과제로 주어졌다. 2 제과·제빵 직종 수상자들. 왼쪽부터 은상 정일균, 금상 변중범, 동상 정확천 선수. 3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이틀에 걸쳐 실기경연이 열렸다. 4 경기 도중 출전 선수를 격려하는 임현양 심사장. 5 출전 선수들의 우수한 실력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수상자 선정에 고심이 많았다.

